

글·사진 : 편집부

한국농업의 희망을 제시한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현장으로!



곤충을 직접 만져 보는 어린이



녹색식품 체험관

전라남도 대표 특산물 한자리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소재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됐다.

‘그린(Green)농식품, 행복한 소비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유기농업관과 농업예술관을 비롯하여 8개 전시관을 운영, 친환경 농특산물과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2개 장터와 널뛰기, 농작물 타작, 민속놀이 체험과 난타공연 등 신명나는 25종의 부대행사가 매일 열리는

풍성한 축제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년도 박람회와 달리 아열대 식물이 어우러진 향기체험관을 신설하고 산업곤충관도 새롭게 개장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식품관을 수출비즈니스관과 녹색식품체험관으로 확대 운영했다.

전남도는 이번 농업박람회를 통해 수출계약 80억 원, 약 정판매 200억 원, 농산물 현장판매 20억 원 등 30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릴 계획이라 밝힌 한편 실제 이번 농업박람회에서 열린 해외유통기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713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한



행사스케치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①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준영전남도지사 ②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관람객들 ③ 농업예술관에 꾸며진 오이 ④ 소원성취 부스 ⑤ 신설된 산업곤충관 ⑥ 작은 동물농장에 오리 ⑦ 녹색식품체험관에 위치한 유기농 식품

국농업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박준형 전남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8개 전시관을 설치해 달라지는 농업 현실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정 역점시책인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특산물만 전시·판매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박민수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한국농업의 꿈과 희망을 보여줌은 물론, 전남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박람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8개 전시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현장 공부방 역할 특출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해 유기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농자재, 가공제품도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8개 전시관은 관람객

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오감만족을 충족시켰다.

먼저,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 전시관은 돔 형태의 유리 식물원인 향기체험관으로 파파야, 워싱턴야자 등 아열대 식물과 국화 작품, 허브 식물이 어우러져 정원처럼 꾸며져 있다. 체험관 곳곳에는 관람객의 쉼터와 포토존을 설치해 관람객의 편의를 배려한 모습도 돋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장된 산업곤충관은 살아 있는 곤충 전시로 생동감 있는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고, 미래 농업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의 산업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게 마련됐다. 유기농업관은 전남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시제품 등을 전시하며, 유기농 명인과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전남의 유기농산물 홍보와 함께 천연자재 이용 농자재 제조 과정을 시연했다. 관람객들은 누에 변화 단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며 단순히 관람형태가 아닌 현장체험



⑧ 전남도지회 부스 ⑨ 오리고기를 시식하고 있는 관람객들 ⑩ 협회부스를 찾은 보성군 축산계장과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⑪ 전남오리브랜드육을 살펴보는 관람객
⑫ 오리고기를 원가판매하고 있는 협회 ⑬ 원산지표시 의무제를 설명하고 있는 협회 ⑭ 한국오리협회 전남도지회 부스

형태의 전시관을 즐길 수 있었다.

전남도지회, 녹색축산관서 오리고기 시식 · 할인판매로 오리고기 소비 촉진 기여

녹색축산관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모델과 친환경 축산기술을 선보이고 매일 병아리가 부화되는 모습을 연출, 어린이들에게 생명탄생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는 한편 각 축종별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축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녹색축산관 입구에 자리한 우리 협회 부스는 양적 질적으로 작년 농업박람회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박람회에 참여한 협회는 시식회를 열고 오리고기 원가 판매를 통해 우수한 국내산 오리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남도 오리육 브랜드 전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오리고기 지역소비를 활성화시켰다. 또 오리

고기 판매 시 오리요리 레시피 책자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즐겨먹는 음식으로 오리고기 인식을 제고하고,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함께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오리협회를 찾은 관람객은 “외식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저렴하게 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어 좋다”, “박람회 와서 우연찮게 오리고기를 시식하게 되었는데 아주 맛있다. 앞으로도 오리고기를 많이 애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오리고기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정정우전남도지회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오리고기는 하루 최대 800개 물량이 판매되며 높은 인기였다.”며 “어려운시기에 오리고기를 소비촉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국내 농·축산업의 발전을 비롯하여 소비자들이 오리고기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협회 또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것을 약속한다.